

##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 삼지연혁명전적지를 돌아보시고 삼지연군의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삼지연혁명전적지를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삼지연대기념비를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국진군의 길에 오르신 력사적인 그날의 모습 그대로 군복차림을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과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 인민들의 모습을 형상한 부주제 조각상들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삼지연의 만년재보이며 혁명전통교양의 거점인 삼지연대기념비를 돌아보니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려는 결심과 의지가 더욱 굳세어진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삼지연혁명전적지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조선로동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만대에 길이 빛내어갈 일념을 안고 대기기념비관리사업에 깨끗한 충정을 바치고있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삼지연혁명전적지답사숙영소를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대학생 1각, 대학생식당 등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답사숙영소의 봉사활동정형과 답사자들의 생활조직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삼지연혁명전적지답사자들을 위한 생활거점답사숙영소의 내부를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더 잘

꾸려주자고 하시면서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답사사업은 우리 혁명의 최후승리를 이룩할 때까지 항구적으로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시면서 해당 부문 일군들이 자기들앞에 맡겨진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다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삼지연군의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삼지연학생소년궁전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연혁소개실, 성악소조실, 물리소조실, 자동차소조실을 비롯한 궁전의 여러곳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삼지연학생소년궁전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던 아이들의 궁전이라고 하시면서 대원수님들의 태양상초상화를 더 밝고 정중히 모시는 데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삼지연은 겨울이 빨리 찾아오고 오래 지속되는 계절적 특성이 있는것만큼 겨울철에도 학생들이 과외소조활동을 지장없이 할수 있게 궁전의 실내온도보장조건을 잘 세워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지열난방체계를 도입하

여 온도보장문제를 원만히 풀데 대한 지시를 주시였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는 아까울것이 없다고 하시면서 궁전을 개건할 때 소조실들의 교구비품들을 모두 새것으로 바꾸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였다.

체육관에 들리시어서는 야간에도 운동을 할수 있게 조명조건문제를 원만히 풀어주며 통구대를 비롯한 기재들을 더 잘 설치해줄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배개봉국수집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1층과 2층의 여러 식사칸을 돌아보시면서 국수집의 내외부환경과 봉사활동정형을 자세히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배개봉국수집 운영을 더 잘하자면 남의 본을 따러 하지 말고 자기 지방의 특색, 자기의 얼굴을 살리며 농마와 고기 등 원자재보장대책을 철저히 세우는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배개봉국수집의 봉사자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간곡한 말씀을 가슴깊이 새기고 인민에 대한 헌신적인 복무정신을 더 높이 발휘하리라는 기대를 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삼지연문화회관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회관관리실래와 군내인민들의 문화정서생활정형을 구

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군예술소조는 정상적으로 운영하는가, 영화상영은 어떻게 하는가도 물어주시고 군내인민들의 문화정서적요구를 원만히 충족시키자면 회관관리운영사업을 끊임없이 개선해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일군들은 인민을 위한 일에서는 만족이란 있을수 없다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인민들이 마음껏 문화정서생활을 향유할수 있도록 훌륭한 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아글라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백두산지구체육촌의 실내호케이장과 아외스케트장, 스키주로를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온 나라에 차넘치는 체육열기에 맞게 청소년들과 근로자들이 널리 리용할수 있는 대중체육시설들을 더 많이, 더 현대적으로 건설해주자는것이 당의 구상이라고 하시면서 나라의 중요한 겨울철체육기지인 백두산지구체육촌을 현대적으로 개건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백두산지구체육촌개건을 당에서 직접 밀어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설계와 시공에 이르기까지 개건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사자봉체육단 스키선수들의 훈련을 보시였다.

훈련에 앞서 선수들을 몸가까이에 부

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스키를 배운지 얼마나 되는가도 물어주시고 그들이 착용한 스키복도 주의깊게 보아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높은 기교동작을 수행하며 바람처럼 날아내리는 선수들의 모습을 대견하게 바라보시며 마식령스키장이 준공되면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속에서 스키바람이 일어나게 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삼지연군을 돌아보신 다음 군앞에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삼지연은 우리 혁명의 시원이 열린 혁명의 성산 백두산아래 첫동네이므로 여기에서부터 사회주의만세소리, 로동당만세소리가 더 높이 울려나오게 하려하는 것이 당의 확고한 결심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삼지연군내 인민들이 자기의 본분을 다하자면 군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말씀을 자자구 따져가며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길이 빛내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삼지연군에 또 오시겠다고, 자신께서는 혁명의 성산 백두산을 지적에 바라보며 사는 삼지연군인민들을 늘 생각한다고 하시면서 군안의 매 세대들에 물고기를 보내주시는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본사기자

##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 항공절을 맞으며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제991군부대를 방문하시고 장병들을 축하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항공절을 맞으며 오종훈7련대최호를 수여받은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제991군부대를 방문하시고 장병들을 축하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휘관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시면서 항공절을 맞는 군부대군인들에게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군부대의 군인들과 담화를 나누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세심한 지도와 보살핌속에 이곳 군부대를 비롯한 항공 및 반항공군부대들이 사회주의조국수호전에서 자랑찬 승리와 영광의 한길을 걸어올수 있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우리의 항공무력을 최정예전투대로로 장성강화하기 위하여 온갖 로고와 심혈을 바치시였다고, 비행사들을 누구보다 아끼고 사랑하시며 주실수 있는 사랑과 은정을 다 베풀어주시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의 항공무력이야말로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남기신 고귀한 혁명유산이며 대원수님들의 항

공 및 반항공군건설업적은 주체의 군건설사에 길이 빛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슬하에서 자라난 우리의 항공 및 반항공군이 있기에 우리 인민군대는 필승불패이며 사회주의조국은 금성철벽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군부대군인들이 만단의 전투동원태세에서 최후의 승

리를 향하여 앞으로 전진하는 사회주의조국을 굳건히 수호해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군부대군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은 군인들은 격정에 겨워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와 《김정은 결사옹위!》의 구호를 부르고 또 불렀다.

본사기자

### 조국소식

#### 더욱 훌륭히 변모된 명승지 박연지구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명승지 박연지구가 새롭게 변모되어 인민들에게 즐거움을 안겨주고있다.

이 지구의 명소들과 력사 유적들을 찾는 인민들의 편의를 더 잘 보장해줄수 있게 새로 탐승도로와 많은

다리가 건설되고 곳곳에 휴식터, 계단 등이 형성되었으며 봉사 및 문화후생시설들이 개건되었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의 유훈과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시에서는 박연지구를 보다 훌륭히 꾸리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내밀었다.

조선로동당의 은정속에 박연지구가 훌륭히 변모됨으로써 이곳을 찾아 즐거움 휴식의 환미를 보내는 각계층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의 수가 더 늘어나게 되었다.

본사기자

### 정보원해체, 《보안법》철폐투쟁을 전개해나갈것이다

《보안법》이 조작된지 65년이 되는것과 관련하여 11월 30일 서울역광장에서 남조선의 《보안법》폐지국민련대, 《정보원 해체를 조작과 공안탄압규탄 대책위원회》, 범민련탄압대응시민사회공동대책위원회 등의 공동주최로 악법폐지를 위한 집회가 진행되었다.

집회에서는 발언들이 있었다.

《보안법》폐지국민련대 집행위원장 박태군은 지난 선거에 불법적으로 개입하고 심각한 정치공작을 해온 정보원을 비롯한 권력기관들

이 범죄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보안법》을 수단으로 사화에 《종북》몰이를 불러오고있다고 단죄하였다.

그러니없는 사건들을 편일 조작하며 국면전환에만 몰두하고있는 한심한 상태가 1년 가까이 지속되고있다고 우려를 표시하였다.

그는 《보안법》이 독재통치, 《종북》몰이의 법적도구가 되고있는 현실을 폭로하였다.

민가협 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권오현은 최근의 《보

안법》적용에서 주목되는것은 《정부》의 주장을 반대하는 모든 대상을 지어 야당도 《종북》으로 몰려 탄압하고있고있다고 개탄하였다.

정보련대 공동대표 박석운은 《보안법》은 유엔인권위원회에서도 여러차례에 걸쳐 폐지를 권고하였던 반인권악법, 민주화운

동을 《윤공, 종북》으로 몰아 탄압하는 반민주악법, 평화통일운동을 탄압하고 《종북》몰이수단으로 사용하는 반통일악법, 일제시대 독립운동가를 탄압한 《치안유지법》과 같은 반민족악법이라고 략인하고 즉시적인 폐지를 주장하였다.

그는 파쇼분자들이 《안보》를 빙자해서 민족운동

가, 평화통일운동가들을 탄압하고 권력을 잡기 위해 날치기로 통과시킨 《보안법》에 의한 독재를 더이상 참을수 없다고 하면서 정보원해체투쟁과 함께 《보안법》철폐투쟁을 전개해나갈것이라고 언명하였다.

집회에서는 선언문이 랑독되었다.

집회가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시위행진을 벌였다.

본사기자



올해전투를 성과적으로 결속하기 위해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 평양양말공장에서 —



# 《김정일동지께서 반세기가 넘는 장구한 기간 불면불휴의 선군령도로 조국과 혁명, 시대와 력사앞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업적은 우리 혁명위업의 승리적 전진과 더불어 천추만대에 길이 빛날것입니다.》

## 김 정 은



↑ 평양밀가루공공장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  
← 2.8비날론연합기업소를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

### 인 민 행 렬 차 는 오늘 도 달 린 다

민족의 영원한 아버지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경모심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뜨겁게 젖어드는 12월이다.

한평생 조국과 인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그의 혁명생애를 길이 전하는 인민행렬차의 기적소리 오늘도 강산에 메아리치는듯싶다.

인민행렬차, 이 말씀에는 인민위전을 자신의 좌우명으로 삼고 인민을 위해 한몸을 불태우신 위대한 장군님의 한평생이 담겨져있다.

조국방선의 바람세찬 전초기와 공장외의 구내길, 협동천야를 걷고걸으며 병사들, 인민들과 함께 계신 장군님이다.

인민행렬차에 그 어떤 다른 궤도란 있을수 없다는 인민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열정을 안으시고 그의께서는 수천수만리 예민한 선의 현지지도장정을 이으셨다. 강계와 성강, 락원과 라남, 구성과 대흥단, 한드레벌을 비롯 온 나라 방방곡곡에 나라의 번영과 인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온갖 로고와 심혈을 기울이신 장군님의 헌신의 자욱

이 새겨져있다. 생애의 마지막 시기까지 인민들이 사는 곳이라면 그 어디건 쉬임없이 달려온 그의 불면불휴의 로고를 걸이 전하는 렬차강행군이라는 새로운 시대에도 생겨났다.

우리말사전에 없는 이 시대어를 외울 때면 사람들은 이제 제는 집에 오면 려편에 온것 같고 렬차에 올라야 집처럼 마음이 편해진다고 하신 장군님의 심중의 고백을 새겨보곤 하는것이다.

비바람 세찬 험한 길을 걸으시면서도 인민을 위해 맞은 이런 비는 찬비가 아니라 《옥비》라고 하시면서 나는 일없다고, 인민에게 줄 훌륭한 제품을 보니 마음이 즐겁다고 하시면서 비를 맞으시며 공장의 구내길을 걸으신 장군님이다.

인민행렬차의 힘찬 동음이 과학기술과 경제발전에서 최첨단물자의 열풍을 일으켜 CNC화와 씨앗이 울렸고 새 세기 현대적기공업의 튼튼한 토대도 닦아졌다.

소리없이 녹아 대지에 생명을 주고 봄을 부르는 《흰눈

철학》에 자신의 인생관을 비껴보시면서 우리 모두 강성대국과 후손만대를 받드는 뿌리가 되자고 호소하시며 인민행렬차를 타고 끝없는 헌신의 길을 이으신 장군님.

그이께서는 언제나 30℃를 기록하는 북방의 회한 발전소건설장을 찾으시고 쏟아지는 환눈을 맞으시며 제령광산을 현지지도하시였으며 하루해가 지무는 무렵까지 레싱강 청년2호발전소건설장을 찾으시어 건설자들을 고무하시였다.

그이의 인민행렬차가 가닿는 곳마다에서 경이적인 사변들이 려이어 이룩되고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튼튼한 도약대가 마련되였다.

비날론폭도, 비료폭도가 쏟아지는 대경사가 펼쳐지고 10년이상 걸려야 한다던 회천발전소건설을 2~3년여만에 끝낼수 있는 놀라운 기적들이 려이어 일어났다.

그이께서는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 날에도 폐년에 없는 추위를 무릅쓰시고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헌신의 자욱자욱을 새기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평생 울려오신 인민행렬차의 기적소리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숭고한 애국애민의 장정으로써 오늘도 나라의 방방곡곡에 울려 메아리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올해에도 정초부터 한해가 다가는 무렵까지 려이신 현지지도로 강성국가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대고조건설을 진두에서 이끄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 부러놓으신 부강조국건설의 귀중한 씨앗들이 훌륭한 열매로 무르익도록 하시였다.

은 나라에 《마식령속도》창조의 불길을 지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강행군속도는 그대로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조국의 전진속도이고 그이께서 올리시는 인민행렬차의 그 기적소리는 강성국가의 최후성리를 알리는 장엄한 퇴성이다.

령도자는 인민을 끝없이 사랑하고 인민은 령도자를 끝없이 신뢰하고 따르는 굳건한 혼연일체의 승결과 발걸음에 의해 강성국가의 래일이 앞당겨지고있는것이다.

본사기자 리경월

에로부터 새벽문을 제일 먼저 여는 사람에게 복이 차려진다고 하였다.

인민을 제일로 아끼고 사랑하시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한평생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만복을 위해 나라의 새벽문을 제일먼저 여시고 나라의 저녁문도 제일 늦게 닫으시며 애국헌신의 장정을 이으셨다.

언제나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나는 수령님의 현지지도사업을 보좌해드리는 기간 밀린 일을 처리하느라고 어제 밤을 사무실에서 새웠습니다.

...새벽공기를 마시면 좋다는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만 우리들처럼 새벽공기를 남기지 마시는 사람은 많지 못할것입니다.

새벽공기는 혁명가들이 남기지 마시게 됩니다.

인민을 위하여 새벽길을 남기지 않는 만경대가문의 가풍을 변함없이 이어가실 그의 드림없는 신념과 의지가 담긴 말씀이었다.

그날부터 장군님께서 조국의 새벽문을 늘 남기지 여시고 인민들과 병사들을 찾아 멀고 험한 현지지도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나가시였다.

그 길에는 산촌의 새벽공기가 얼마나 좋소, 난죽작이면 충분하오, 걱정마오라고 하시면서 가슴을 꼭 껴서 심호흡을 하시던 자강도의 현지지도였다.

조국과 인민의 운명과 미래에 대한 불타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지니시고 불철주야 이어가신 장군님의 애국헌신의 한평생이 있어 우리 나라의 정치군사강국으로 나라의 국력을 만방에 떨치게 되었고 최첨단물자의 불길높이 세인을 경탄시키는 변혁들을 려이어 창조하고있는것이다.

오늘 공화국인민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의 한평생을 돌이켜보면서 경애하는 원수님을 받들어 사회주의강성국가를 기어 올려세울 불타는 열의에 차념쳐있다.

본사기자 김강철

로 하여금 마음의 불길이 되어 끝없는 열정을 쬐게 한다.

그이의 말씀을 통해 비상한 애국의 열정과 헌신으로 조국의 부강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길에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절세의 애국자의 숭고한 조국관, 인민관 그리고 고매한 품도에 대해 가슴뜨겁게 절감하게 되는것이다.

조국과 인민의 운명과 미래에 대한 불타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지니시고 불철주야 이어가신 장군님의 애국헌신의 한평생이 있어 우리 나라의 정치군사강국으로 나라의 국력을 만방에 떨치게 되었고 최첨단물자의 불길높이 세인을 경탄시키는 변혁들을 려이어 창조하고있는것이다.

오늘 공화국인민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의 한평생을 돌이켜보면서 경애하는 원수님을 받들어 사회주의강성국가를 기어 올려세울 불타는 열의에 차념쳐있다.

본사기자 김강철

최근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삼지연학생소년궁전, 백두산지구체육촌, 삼지연문화회관을 비롯한 량강도 삼지연군의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지도하시였다. 날과 달을 이어 공장과 건설장, 협동벌, 과학연구기구들과 교육, 보건, 체육부문을 비롯하여 수많은 단위들에 대한 그의 현지지도는 한해가 다가는 무렵에도 계속되고있는 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지도는 집민의 애국열의를 고조시키는 정신력의 원천으로, 창조와 건설에서 기적을 낳게 하는 거대한 추동력으로서 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지도는 해당 부문, 분야에 대한 깊은 조예와 해박한 식견, 심박한 통찰력으로 실정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분석을 내리고 문제해결의 묘안과 사업, 방도제시 그리고 생산자, 건설자들을 비롯한 대중의 비동원 열의를 북돋아주는 고무격려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세심한 령도이다.

지난 6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평안북도 창성군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창성식

료공장을 비롯하여 여러 단위들을 돌아보시며 지방산업실태를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고 군의 역할을 높여 지방경제를 발전시키며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를 가르쳐주시는 그의께서 다시금 강조하신것은 지방의 특성에 맞게 군을 발전시키는 문제 다시말하여 산을 깬 곳에서는 산을, 바다를 깬 곳에서는 바다를 리용하는것과 같이 자기 지방의 특성에 맞게 경제를 발전시키고 자기 군의 얼굴이 있고 세계와 경쟁할수 있는 제품들을 생산하는 지방산업발전의 방향을 확히 밝혀주시는것이다.

강원도의 고산과수농장은 근 10개의 리의 넓은 대지에 펼쳐져 능력확장되고있는 대규모의 과일생산기지이다. 몇달전 그곳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는 현 과수재배정형과 공사실태를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고 농장이 청정과원으로 전변되였다고 하시였다. 앞으로 농장에서 과수발전적확장, 과일목목생산, 과일나무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는 문제 등을 일일이 가르쳐주시는 그의께서는 과수와 축산, 축산과 과수의 고리형순환생산체계를 세워 유기질분뇨비료시비에 의한 지력을 높이고도록 하는 문제를 강조하시였다. 유기농업, 생태농업을 지향하는 오늘의 농업발전추세를 헤아리고계시는 그의께서는 농산과 축산을 배합하는 혼합경영구조를 과수에서도 적극 받아들여이도록 할때 대해 이르신

것이였다.

그이께서는 불철주야로 이어지는 현지지도의 길에서 해당 분야의 일꾼들이나 전문가, 생산자들이 잘 모르거나 미처 관심하지 못하는것 이를테면 생산과 건설과정에 선후차를 정하고 걸린고리를 푸는 방도적문제, 선 권리성, 후 미확성의 원칙을 지키는 문제, 공장, 기업소들의 현대화에 있어 무인화를 실현하는 것을 주선으로 틀어쥐고나가도록 하는 문제 등을 비롯하여 해당 단위들에서 해결해야 할 과업과 방도, 대책적문제들을 확히 밝혀주시는것이였다.

지난 3월 활조기선수들의 경기를 보실 때에도 그의께서는 활조기경기는 보는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흥미있고 재미있는 경기라고 하시며 앞으로 올림픽 경기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도록 고무격려하시면서 자기 식의 활조기술과 전술체계, 과학적인 훈련방법을 완성하여 훈련을 강화하는것, 선수들의 체질에 맞는 기구들을 갖추는것 등 현실적으로 나서는 과업을 일일이 가르쳐주시는것이였다.

인민들속에, 현실에 들어가서 인민들과 승결과 함께 하시며 인민의 무궁무진한 정신력을 발동하고 인민의 힘과 지혜에 의거하여 애국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력적인 현지지도는 강성국가건설의 확고한 담보로 되고있는것이였다.

김연희

세계를 놀래우려는 확고한 의지

필 때면 북동풍도 더는 참지 못하고 일어나 어깨춤을 추고 노래가 끝나면 환성과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 고 하면서 《모란봉악단은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높은 세계를 보라!) 라는 김정일국방위원장의 말씀을 그대로 구현하고있는것이다. 결국 조선의 전통문화의 정체성과 장점은 철저히 계승하면서 세계인들에게 널리 호소하고 그들을 적극적으로 격동감시킬수 있는 기법이나 기술 등을 받아들여 새로운 북의 문화로 재창조하겠다는것이 김정은원수님의 의지가 아닌가 생각된다.》고 지적하였다.

같은 나라에서 뛰어난 음악실력가들을 모아 최첨단 악기와 무대를 꾸려주고 새로운 노래와 연주 기법도 과감하게 도입하여 만든 모란봉악단과 같은

대중적인 악단은 세계 어디에도 없다면서 출발자체가 세계에 없는 새로운 악단이기에 앞으로도 새로운 작품들을 많이 선보일 것으로 예견되며 이런 새로운 시도가 군사, 과학기술, 경제령역 등 북 사회 전반으로 확대될것이 자명하다고 하면서 이렇게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는 세계주세를 따라잡는 정

본사기자



인 민 의 행 복 넘 쳐 나 는 대 동 강 반

# 《통일에 대한 국민적공감대》 높음, 그 기도는?

최근 남조선보수집권세력은 《통일에 대한 국민적공감대》 높음을 열을 올리고 있다. 남조선집권자가 얼마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상임위원》들을 청와대로 불러들여 《간담회》라는 것을 벌려놓고 《〈통일정책〉은 국민적공감대속에 추진되어야 한다.》느니 뭐니 하고 력설했으며 청와대는 이 《간담회》를 두고 《통일에 대한 국민적공감대확산을 위해 마련된것》이라고 떠들었다. 이에 앞서서는 남조선의 통일부, 《통일교육주간 제정》이기, 《행사》니 하며 분주함을 피워냈다. 남조선보수당국이 마치 겨레가 갈망하는 통일이 관심이나 있는듯이 너스레를 피워대고있지만 《통일에 대한 국민적공감대》 높음에는 윤희한 기도가 깔려있다.

한마디로 남조선당국의 《통일에 대한 국민적공감대》 높음은 인민들에게 저들의 《체제통일》야망에 대해 공감시키고 극도의 동족대결의식을 고취시키자는 데 있다. 현 집권자가 지난해 대선 시 《외교안보통일정책》공약에서 《통일로 가는 력장에서 무엇보다 필요한것은 국민적공감대》라느니 뭐니 하면서 《이를 위해 자유민주주의질서에 기초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계승발전시켜 통일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겠다.》라고 력설했던 것이 이를 립증해주고있다. 이번에 진행한 《간담회》라는 데서도 현 집권자는 《북이 믿을수 없게 행동한다》해서 통일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멈출수는 없다.》느니, 《북러탈민들의 역할》이니 하고 력설했었다.

지금 남조선보수집권세력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위한 투쟁의 앞장서온 단체와 인사들에 대해 《중복》이니 뭐니 하면서 류례없는 탄압선봉을 일으키고있다. 남조선당국은 통합진보당의 목적이 《자유민주주의적기본질서에 반하는 북의 사회주의를 추종한다.》느니 뭐니 하면서 그 말살에 광분하고있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해서도 《중복의 심장》이니, 《내부의 적》이니 하고 몰아대며 해산시키버리려 하고있다. 남조선보수당이 마구 휘둘러대는 파쇼의 동종이 앞에 진보적인터네트신문인 《자유민보》까지 폐간의 운명에 처해있다. 이렇게 놓고볼 때 남조선보수집권세력이 벌리고있는 《통일에 대한 국민적공감대》 높음은 저들의 동족대결정책에 대한 《공감대》 추구의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남조선보수당국이 지금 《체제통일》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통일에 대한 국민적공감대》 높음을 매달리고있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북과 남은 6.15공동선언을 통하여 나라의 통일문제를 공유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갈데 대해서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북측의 낮은 단계의 련방제안과 남측의 련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나가기로 합의하였다. 력사적인 북남공동선언들에 의해 반목과 대결로 얼어붙었던 이 땅에 화해와 협력의 봄이 오

고 끊어진 지맥과 혈맥이 하나로 이어지게 되었으며 북남삼천리에는 민족적화해와 단합, 자주통일의 거세찬 열기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6.15시대를 직접 체험하면서 북과 남, 해외의 온 민족은 북남공동선언리행에 바로 우리 겨레가 일일천추로 갈망하는 통일이 있다는것을 뼈부르 걸감하였다. 때문에 오늘도 남북민심은 《6.15시대는 분단이후 우리 력사에 있어본적 없는 남북화해협력과 통일에 대한 확신이 뜨겁던 시간이었다.》고 하면서 보수당국에게 북남공동선언의 성실한 리행을 나설 것을 촉구하고있는것이다. 만일 남조선의 보수집권세력이 어리석기 그지없는 《체제통일》야망에 계속 매달린다면 력사와 겨레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것이다. 리어금

현시기 북남관계는 약화일로로 끌고있다. 이에 대해 온 겨레가 우려하며 하루빨리 북남관계가 좋게 진전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현 남조선보수당국은 《원칙고수》요 튀오 하면서 양무세처럼 대결나발만 불어 대고있다. 오늘에 와서 북남관계파국의 원인이 현 남조선보수당국의 동족대결적인 《원칙고수론》에 있다는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남조선보수당국이 제창하는 《원칙고수론》은 정상화 《비정상》으로 둔갑시키는 극악한 반통일론이다. 남조선보수당국은 6.15시대의 북남관계를 놓고 북에 남이 끌려가는 관계, 남이 북에 굴종과 굴욕을 당하는 《비정상관계》였다고 하면서 그것을 《정상관계》로 바꾸어놓는것을 그 무슨 《원칙》으로 내세우고있다. 6.15통일시대가 민족의 화해와 단합,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시대라는것은 누구도 부정할수 없다. 그러나 남조선보수당국은 6.15통일시대에 이룩된 북남관계의 성과들을 모조리 부정하고 그것을 《비정상관계》로 묘사하고있다. 북남수뇌분들이 력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채택한것자체가 《비정상》이고 반세기이상 끊어졌던 지맥과 혈맥이 이어져 수많은 동포형제들이 북과 남을 오가며 동포애의 정을 나누고 통일의지를 과시한것이 《비정상》이라고 하는것은 극악한 대결분자들만이 할수 있는 망발이다. 우리 민족끼리는 북남선언들을 통하여 내외에 천고보는것이며 리념이며 6.15통일시대의 전진을 추

송당한것》이라고 떠벌이고 있다. 또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창설하기로 한것은 《북에 굴종을 당한것》이고 금강산관광사업은 《북에 퍼주기》를 한것이라고 악의에 차서 헐뜯고있다. 온 겨레에게 화해와 기쁨을 더해준 6.15이후의 성과들은 《비정상》이고 조선반도에 조성된 극단한 불신과 대결상태가 《정상》이라고 보는것이 바로 《원칙》의 랄을 쓴 남조선보수집권세력의 대북 사교이다. 결국 남조선보수당국이 북남관계를 《비정상》으로부터 《정상관계》로 바꾸어놓겠다고 하는것은 6.15통일시대를 대결의 시대로 되돌려놓으려는 시대착오적인 반통일적책변인것이다. 남조선보수당국이 정상화 《비정상》으로 둔갑시키는 반통일론인 《원칙고수론》에 계속 매여달린다면 북남사이의 대결상태는 언제가도 해소될수 없으며 그로 하여 초래될것은 전절뿐이다. 남조선의 보수집권세력은 시대착오적인 《원칙고수론》에 매달려 동족대결을 고취할것기 아니라 대세를 똑바로 보고 바른 사교를 해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리경순

## 정상을 《비정상》으로 둔갑시키는 반통일론

동해는 근본정신이다. 자주와 민족대단결의 원칙을 구현한 우리 민족끼리에 기초할 때 북남관계에서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다는것은 이미 실천을 통하여 확증되었다. 북남관계를 화해와 단합, 협력을 도모해나가는 우리 민족끼리의 관계로 전환시킨 6.15통일시대는 온 겨레의 가슴마다에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에 대한 희망과 확신을 안겨주었다. 그러나 남조선보수당국은 우리 민족끼리념을 공동으로 확산한것은 《북의 전정》과 그것을 《비정상관계》로 묘사하고있다. 북남수뇌분들이 력사적인

# 남조선집권세력의 《유신》 독재부활책동과 파쇼적탄압책동을 분쇄하자

##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성명 발표

재중조선인총련합회가 11월 25일 《남조선집권세력의 《유신》 독재부활책동과 파쇼적탄압책동을 분쇄하자》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지금 남조선에서 벌어지고있는 현 집권세력의 극악한 《유신》 독재부활책동과 진보민주세력에 대한 탄압살책책동을 재중조선인들의 분노심을 극도로 폭발시키고있다 고 지적하였다. 력사의 옴몰로 이미 시국창에 처박혔던 과거 《유신》 독재의 잔당들이 현 보수집권세력의 등장과 함께 거여나와 《유신시대》가 돌아왔다.》느니, 《독재가 필요하다.》느니 뭐니 하며 찬미하고있다 고 규탄하였다. 뿐만아니라 통합진보당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비롯한 남조선의 진보적정당과 통일운

동단체들 등에 대한 무차별적인 탄압에 광분하고있다 고 단죄하였다. 해외동포들은 수십년전 악명없는 《유신》 독재 《정권》이 남조선인민들은 물론 해외에 살고있는 동포들에게까지 마수를 뻗치고 어떤 짓 불법무법의 잔인한 악행과 만행들을 저질렀는가를 잊지 않고있다 고 밝혔다. 남조선에서 이러한 《유신》 독재가 부활되는것은 21세기의 비극이고 민족의 수치가 아닐수 없다고 비난하였다. 더우기 과거 《유신》 독재자가 《용공책결》을 떠들며 통일운동탄압에 광분하던 그 본래대로 오늘날 《유신》 잔당들이 《중복책결》을 부르짖으며 《유신》 독재부활에 열을 올리고있다 고 지적하였다. 지금 보수집권세력의 광란적인 파쇼적책동과 그에 격

렬히 항거하는 남조선인민들의 대적적투쟁에 의해 남조선은 말그대로 민주수호나 《유신》 독재부활이나 하는 재미동포전국련합회 대변인이 11월 25일 남조선인민들을 협박하는 현 집권자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이날 박근혜가 청와대에서 《지금 내외의 혼란과 분열을 야기시키는 행동이 많다.》느니 뭐니 하며 용납하거나 묵과하지 않겠다.》고 하며 떠벌인데 대해 언급하였다. 이것은 천주교정의구현전주교구사제단을 비롯하여 박근혜의 퇴진을 요구하는 국민을 협박하며 공안통치로 끝장을 보겠다는 망발이라고 비난하였다. 여기에 발맞추어 《새누리당》과 《정부》도 국민을

갈림길에 놓여있다고 주장하였다. 전체 재중조선인들은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한다고 하면서 그들이 사회의 민주화와 《유신》 독재부활반대투쟁에 보다 과감하게 떨쳐나서야 할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은 남조선인민들의 정의 투쟁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줄 모르는 천편피환이다. 불법선거의 진실을 알고있는 해외의 국민은 박근혜 퇴진만이 분별과 혼란을 막을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잘 알고있다. 제2의 《유신》 독재를 강행하는 박근혜의 꿈은 결코 이루어지지 못한다. 진리와 정의의 조불을 들고 부정선거의 주범이자 은폐, 공안통치의 우두머리인 박근혜의 퇴진을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를 결코 막을수 없다. 력사는 언제나 정의가 승리했으며 국민을 지배하고 탄압하던 더이상 설자리가 없다는것을 명심해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광란국을 두고 《정말모(나라), 국민 분열시키고 대결하게 만드는 완전한 중의의 정치다.》라고 개탄하고있다. 현실은 그들이 떠드는 《남남갈등》을 부추기는 장본인이 다름아닌 남조선의 보수집권세력이라는것을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남조선보수당국이 파쇼적인 폭압정치로 현 위기에 서 벗어나고 진보민주세력들을 말살할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산이다. 남조선당국이 동족을 결코 감행하는 온갖 모략수동들은 력사와 겨레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것이다. 서철수

## 력사는 외곡할수 없다

최근 남조선의 교육부가 진보적출판사들이 만든 다음에 고등학교에서 사용될 《한국사》교과서의 일부내용들을 문제시하면서 무조건 수정보충할것을 강요하는 놀음을 벌려놓았다. 남조선보수당국은 력사교과서에 공화국의 토지개혁을 헐뜯고 주체사상과 사회주의경제에 대해 중상하며 《천안》호와 연평도사건의 책임을 북에 넘겨주려는 등 공화국에 적대적이며 부정적인 내용들을 반영할것을 강요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교과서집필자들은 물론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과 진보세력들은 《〈정부〉의 요구는 교과서 집필에 대한 관측한 권력탐용이다.》, 《밀실심으로 력사를 흔들고있는 교육부장

관은 즉각 사퇴하라.》고 강하게 반발하고있다. 남조선보수당국이 이번엔 헐뜯고나선 북의 토지개혁으로 말하면 땅의 주인이 되어버려던 농민들의 세기적수망을 풀어준 거대한 력사적 사변이었다. 공화국은 주체의 기치높이 자립적민족경제로선을 튼튼히 틀어쥐고 자주, 자립, 자위의 강국을 일떠세웠으며 모든 인민이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누릴 강성국가로 지척에서 바라보고있다. 이번에 남조선보수당국이 진보적출판사들이 발간하려는 고등학교용 력사교과서에서 공화국과 관련된 내용들을 외곡하여 악질적이고 반통일적인 내용들로 무조건 수정보충할것을 강요한것은 자라나는 새 세대들에게 반공

화적대감과 반동적력사관을 주입하여 남조선사회를 더욱 보수화, 파쇼화하기 위한 책동이다. 그것은 또한 《유신》 독재를 거여이 부활시키려는 남조선보수집권세력의 흉심을 그대로 드러낸것으로 된다. 그러나 그들이 제아무리 자라나는 새 세대들에게까지 동족대결의식을 고취하려고 해도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바라는 온 겨레의 열망을 막을수는 없다. 력사는 외곡한다고 해서 달라지는것도 아니다. 통일된 조국을 떠메고나갈 새 세대들에게까지 동족대결의식을 주입시키려는 남조선보수당국의 죄행은 천추만대를 두고도 다섯울수 없으며 력사와 민족은 똑똑히 계산할것이다. 본사기자 최명제

# 《남남갈등》을 부추기는 장본인

지금 남조선에서는 력사에 류례없는 《중복》 광란국에 의해 사회의 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해 투쟁하던 리로운 단체와 통일인사들이 탄압을 받고있다. 공화국은 동족을 결코 감행되는 파쇼적책동을 준벌히 단죄규탄하였으며 여러 사회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남조선당국이 비렬한 《중복》 소동을 당장 갈어치울것을 강력히 요구해나갔다. 여기에 금배맞은 남조선보수당국은 《남남갈등을 부추기려는 의도》라고 하면서 《즉각 중단하라》느니, 《반 〈정부〉 투쟁성동을 그만둬야 한다.》느니 하고 떠들어대고있다. 이것은 그야말로 문제의 본질을 흐려놓고 그 책임에서 벗어나려는 황당무계한 꾀변에 불과하다. 솔직히 말해서 남조선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장본인은 다름아닌 남조선의 현 집권세력이다. 지금 남조선당국은 최악의

위기에 직면하였다. 집권자가 《대통령》 선거 때 내놓은 핵심공약인 《기초연금제 도입》을 《재정형편》을 구실로 포기해버려서 연이은 불분한 가운데 보건복지부장관이 당국자의 오만한 통치방식에 더는 참고견딜수가 없어 스스로 사퇴하였다. 이보다 앞서 감사원원장 양건이 《〈정부〉의 압력으로 〈헌법〉적 독립기관의 독립성을 지키지 못했다.》며 집권자를 비난하고 사퇴하였다. 정보민, 국방부, 보건처, 행정안전부 등 《국가》기관들이 대선에 엄청난 규모로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 경악을 자아내고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요구하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있다. 《새누리당》과 정보원이 작당하여 《서해 북방한계

선》론난을 불러일으키고 초보적인 레의도 없이 2007년 북남수뇌상봉회담록도 공개해보았지만 생각했던 효과를 거두지 못하게 되었다. 《한반도 평화포럼》이, 《원칙고수》니 하면서 모처럼 마련되었던 대화분위기를 말아먹고 북남관계를 파국으로 몰아넣고있으며 대국들의 틈새에서 눈치만 보며 이리저리 저러지도 못하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은 이런 사태를 놓고 《정국대혼란》, 《사면초가》 등으로 립언어 보도하면서 현 《정권》의 《국정운영》이 초반부터 총체적난국을 맞고있다 고 대적으로 전하고있다. 이러한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남조선의 보수집권세력은 《중복》 광란국을 대대적으로 벌려놓고 저들에게 장애가 된다고 생각되는 세력

들을 무차별적으로 탄압하고 있다. 탄압의 대상에는 현직 《국회》의원과 정당, 사회단체들, 심지어 진보적인 언론도 있다. 지어는 《국가》기관들의 조직적인 대선개입의 책임을 지고 《대통령》이 사퇴할것을 촉구하겠다고 하여 종교인과 종교단체까지 《중복》 모자를 씌우고 《보안법》에 걸려 탄압하려 하고있다. 하기에 지금 남조선 각계에서는 보수당국의 《중복》

# 당국의 《중복》 몰이와 공안탄압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



# 《중복이 아니면 〈중복〉이 되는 몰상식한 독재시대》

지금 남조선전역에서는 천주교정의구현전주교구사제단의 시국미사를 지지하고 보수당국의 광란적인 《중복》 소동을 단죄규탄하는 목소리가 세차게 울려나오고있다. 경상남도지역의 45개 시민단체와 정당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천주교정의구현전주교구사제단이 시국미사에서 요구한 부정선거진상규명, 책임자처벌, 〈대통령〉 사퇴요명 등을 지지한다. 또한 량심적인 성직자에 대한 몰상식한 《중복》 몰이와 탄압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정부〉, 〈새누리당〉, 수구보수세력은 시국미사의 전체적내용은 무시한채 《중복》 몰이에 나서고있다. 이것은 관련부정선거를

리면서 그들은 《박근혜 〈정부〉가 반매세력을 〈중복〉으로 몰아세우고있다. 오죽했으면 신부들이 〈대통령〉 사퇴까지 촉구하고 나섰겠느냐? 〈대통령〉이 직접 나서 사회를 극단적인 갈등과 대립으로 밀어넣고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들은 정의구현사제단에 대한 《공안탄압중단, 〈중복〉 공세 배후조종중단, 〈국정원〉 선거전 압축의 시대》라고 선언했다. 전라북도지역의 50여개 단체 구성원 《국정원정치공작, 대선개입진상규명 및 민주주의수호를 위한 전북시국회의》도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전주교구 시국미사 외곡, 중복몰이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본사기자

광주지역의 시민, 사회, 종교단체들도 기자회견을 열어 《천주교정의구현전주교구사제단의 시국미사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시국미사를 〈중복〉으로만 답하는 박근혜 〈정부〉는 더 큰 국민적저항에 직면할수밖에 없을것》이라고 밝혔다. 그

최근 각계층 인민들의 반 《정부》투쟁으로 하여 국도의 공지에 물론 남조선의 보수패당이 이를 북과 억지로 연결시키면서 《북의 대남선전공세로 대선불복투쟁이 고조되고있다》느니, 《(정권) 퇴진투쟁이 북의 (지령)에 의한것》이라느니 하며 그 누구의 《내정간섭》에 대해 요란히 떠들고있다.

남조선보수패당은 그 무슨 유감의 뜻을 표하는 《정부성명》이라는것을 발표하는데 이어 지난 3일에는 통일부 당국자가 직접 나

누구의 지령에 의해서가 아니라 보수집권세력이 저지른 반역적책략이 낳은 필연적결과이다.

저들스스로가 빚어낸 최악의 정치혼란과 통치위기를 마치 북에 의해 조성된 듯이 떠드는것이야말로 변변하기 그지없는 궤변이 아닐 수 없다.

이왕 내정간섭이란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 과연 누가 누구의 내정에 간섭했는가.

## 《내정간섭》은 누가 하는가

서서 《북의 반(정부)투쟁》에 대해 지금이라도 당장 그만둬야 한다. 그 아무렇게나 떠들다. 지어 보수언론들과 어중이떠중이들까지 총동원해 《북이 전방위적인 대남비남공세를 펴고있다》느니 뭐니 하며 《북의(내정간섭) 중단》에 대해 떠들고있다.

정말이지 도적이 매를 드는 격의 궤변이 아닐 수 없다.

오늘 남조선에서 날로 격렬해지는 반 《정부》투쟁은 불복과 부정의, 파쇼통치와 《유신》독재부활을 용납치 않으려는 각계층 인민들의 의지의 분출로서 결코 그

현 보수당국이 집권하자마자 공화국의 존엄과 체제, 로선과 정책을 마구 시비하고 헐뜯다 못해 공화국주민들에 대한 유인책과 인간쓰레기들을 리용한 반공화국모략책동에 매달려왔다는것은 이미 폭로된 사실이다.

남조선집권세력이 기도가 있을 때마다 입에 올린것이 바로 《북의 변화》와 《병진로선포기》나발이었다.

얼마전에도 어느 한 강연에 출연한 류길재 통일부장관이 공화국의 병진로선에 대해 헐뜯으면서 《성공할수 없는 로선》이라느니, 《경제에 우선 투자하고 빨리 경제를 살리는데이야말로... 북

주민들로부터 존경을 얻을수 있는 길》이라느니 하고 무엄한 잡소리를 쳤었다.

죽제비도 낮찍이 있다고 입만 벌리면 공화국의 존엄과 체제를 참을수 없게 모독하는자들이 《오상존중》과 《내정간섭》에 대해 떠벌일 체면이 있는가.

지금 미국과 프랑스를 비롯한 서방나라들과 로마교황청에서까지도 남조선집권세력의 선거부정행위와 《종북》소동을 비난하고 규

탄하는 목소리가 높이 울려나오고있다. 보수패당의 말대로라면 이것은 《내정간섭》이 아닌가. 물은 계곡으로 흐르고 파는 지은대로 간다고 이런것을 보고 도적이 제발 저러한다고 말한다.

남조선의 현 집권세력이 당치도 않은 《내정간섭》타령에 열을 올리고있는것은 국도의 《정권》위기로 공지에 빠진자들의 단말마적발악에 지나지 않는다.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정권》퇴진투쟁을 그 누구의 《지령》에 의한것이라고 억지로 련결시키고 저들의 반역적책략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을 《종북세력의 란

동》으로 몰아 탄압하여 국도의 위기에서 벗어나보려는 데 바로 현 보수집권세력이 떠드는 《내정간섭》타령의 불순한 목적이 있다.

하기에 지금 남조선정치 분석가들과 내외언론들은 합법적정당과 시민사회단체, 진보적로동조합과 언론단체, 심지어 종교단체에까지 거침없이 불어들이는 《종북》딱지와 《종북세력척결》소동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면서 서슬푸른 독재의 칼날로 반대파들을 철저히 제거해 《정권》기반을 다지려는 현 집권세력의 권력의 자리

《정권》의 《종북》몰이식 정치를 《유신》독재부활로 단죄규탄하고있다.

제야무리 검은것을 회다하고 여론을 오도해 불의를 정당화하려 해도 정의가 승리하는것은 력사의 법칙이다.

정의로운 민심을 우뚝하고 무참히 짓밟은 독재자들의 말과가 어떤것인가를 력사는 뚜렷히 기억하고있다.

현 보수집권세력은 당치도 않은 그 누구의 《내정간섭》을 운운하기 전에 민심의 한결같은 요구대로 력사의 심판을 받아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김련옥

## 곤욕을 치르는 《신뢰외교》

최근 동북아시아지역에서 북핵해결과 관련하여 남조선당국의 외교적무능력에 대한 비난과 조소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가고있다.

민주당을 비롯한 남조선 각계는 현 집권세력의 외교능력을 두고 《정상의교가 아닌 속민강경, 국내지지도 싸기 위한 걸치레식 외교, 굴종외교》라고 야유와 조소를 보내고있다.

너무도 엉망한것이다.

다 아는바와 같이 남조선의 현 집권자는 권력의 자리에 오르기 바쁘게 그 무슨 《신뢰외교》에 대해 떠들면서 인민들과 한 《공약》은 다 제비비고 해외나들이로 시간을 보냈다.

남조선집권세력들이 내세우고있는 《신뢰외교》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철두철미 상진의 눈치와 비유를 맞추는 《굴종외교》이다.

미국의 불법도청사건에 대한 남조선당국의 태도가 이를 잘 보여주었다. 얼마전 미국이 지금까지 최소한 35개 나라 국가수반들의 전화를 도청해온 사실이 드러나 전세계가 죽가마죽듯 하

었다. 이어 남조선의 현 집권자와 주요인사들도 미국의 도청대상으로 되겠다는 것이 폭로되었다. 그와 관련한 기록도 있다고 한다.

문제는 남조선당국의 태도이다.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미국의 도청행위를 자주권에 대한 반복한 침해로 단죄규탄하면서 강한 책임추궁을 들이대었을 때에도 남조선당국은 당당히 대처할 대신 강건너 불보듯 하면서 외면하였다. 그러다가 저들에 대한 미국의 도청사실이 언론에 공개되자 남조선당국은 당황해하면서 오호라 항의가 아닌 《의혹수준》이라느니, 《근거가 없다》느니 하며 미국에 기껏해서 《사실확인요청》을 하는 추태를 부리었다. 더우기 남조선당국의 《사실확인요청》에 미국이 《립장을 리해한다》는 왕청같은 등문서담으로 둘러치고말아 그들은 세계의 면전에서 또다시 망신을 당하지 않았던 안되었다.

입만 터지면 그 무슨 《신뢰외교》와 《성공한 동맹》을 부르짖던 보수당국이 도청이라는 수모를 당하고도 아

무런 대우도 없이 울며 겨자먹기로 참아야 하니 이보다 더한 망신이 어디에 있겠는가. 남조선 각계에서 《버어리외교》, 《화낼줄 모르는 외교》라고 야유조소한것이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지금 일본은 재침을 노린 무력증강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평화헌법》개정을 위한 《집단적자위권》행사에 합법화에 공명연히 나서고있으며 우리 민족의 신성한 영토인 독도를 저들의 땅이라고 우겨대고있다.

심지어 세계적인 반핵거리로까지 된 일본군성도예문제를 놓고 《표현이 잘못된것》이라느니, 《돈을 바라고 매춘부들이 한 자발적인 행동》이라느니 뭐니 하고 참을수 없이 모욕하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 보수세력들은 꿀먹은 벼어리마냥 아무말도 하지 못하고 오호러 이 문제를 2014년에 열리는 제58차 녀성지위위원회에서 특별의제로 상정시키려는 남조선인민들의 노력에 대해 《적절치 않다》면서

외면해나섰다.

지어 보수집권세력들은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해보려고 재침의 칼을 버리는 날강도적인 일본반동들에게 아무추종하여 《집단적자위권》행사에 동조해나서는 친일역적행위도 서슴치 않고있다.

현 보수집권세력을 얼마나 우습게 깔보았으면 일본수상아베가 언론들앞에서 남조선을 가리켜 《어리석은 지역》이라고 거리낌없이 말하겠는가.

온갖 하대와 수모를 당하면서도 참아야 하고 꼭두각시처럼 외세의 손락에서 계속 놀아나야 하는 식민주주의의 가련한 신세는 그들 자신이 철한 운명이다. 자주성이 없고 사대와 굴종을 체질화한 남조선당국이 동북아시아정세와 관련하여 주변나라들의 눈치만 보면서 곤욕을 치르어야 하는것은 너무나도 당연한것이다.

외세의 하수인, 식민주의인 남조선당국에 있어서 열리는 제58차 녀성지위위원회에서 특별의제로 상정시키려는 남조선인민들의 노력에 대해 《적절치 않다》면서

본사기자 리광성

오늘 남조선에서 날로 격렬해지는 반 《정부》투쟁은 불복과 부정의, 파쇼통치와 《유신》독재부활을 용납치 않으려는 각계층 인민들의 의지의 분출로서 결코 그

현 보수당국이 집권하자마자 공화국의 존엄과 체제, 로선과 정책을 마구 시비하고 헐뜯다 못해 공화국주민들에 대한 유인책과 인간쓰레기들을 리용한 반공화국모략책동에 매달려왔다는것은 이미 폭로된 사실이다.

남조선집권세력이 기도가 있을 때마다 입에 올린것이 바로 《북의 변화》와 《병진로선포기》나발이었다.

얼마전에도 어느 한 강연에 출연한 류길재 통일부장관이 공화국의 병진로선에 대해 헐뜯으면서 《성공할수 없는 로선》이라느니, 《경제에 우선 투자하고 빨리 경제를 살리는데이야말로... 북

탄하는 목소리가 높이 울려나오고있다. 보수패당의 말대로라면 이것은 《내정간섭》이 아닌가. 물은 계곡으로 흐르고 파는 지은대로 간다고 이런것을 보고 도적이 제발 저러한다고 말한다.

남조선의 현 집권세력이 당치도 않은 《내정간섭》타령에 열을 올리고있는것은 국도의 《정권》위기로 공지에 빠진자들의 단말마적발악에 지나지 않는다.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정권》퇴진투쟁을 그 누구의 《지령》에 의한것이라고 억지로 련결시키고 저들의 반역적책략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을 《종북세력의 란

동》으로 몰아 탄압하여 국도의 위기에서 벗어나보려는 데 바로 현 보수집권세력이 떠드는 《내정간섭》타령의 불순한 목적이 있다.

하기에 지금 남조선정치 분석가들과 내외언론들은 합법적정당과 시민사회단체, 진보적로동조합과 언론단체, 심지어 종교단체에까지 거침없이 불어들이는 《종북》딱지와 《종북세력척결》소동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면서 서슬푸른 독재의 칼날로 반대파들을 철저히 제거해 《정권》기반을 다지려는 현 집권세력의 권력의 자리

《정권》의 《종북》몰이식 정치를 《유신》독재부활로 단죄규탄하고있다.

제야무리 검은것을 회다하고 여론을 오도해 불의를 정당화하려 해도 정의가 승리하는것은 력사의 법칙이다.

정의로운 민심을 우뚝하고 무참히 짓밟은 독재자들의 말과가 어떤것인가를 력사는 뚜렷히 기억하고있다.

현 보수집권세력은 당치도 않은 그 누구의 《내정간섭》을 운운하기 전에 민심의 한결같은 요구대로 력사의 심판을 받아야 할것이다.

어들을 자주 입에 올리고있다고 하면서 박근혜는 국민들에 의해 당선된것이 아니라 《국정원》에 의해 당첨되었다. 이런 박근혜가 《국정원》의 《셀프개혁》을 운운하는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실지 개혁해야 할 대상은 바로 박근혜자신이라고 신랄히 비난하였다.

해외동포들은 《민족통일》과 재미동포전국련합회 홈페이지를 비롯한 인터넷언론들을 통한 언론전도 크게 벌리면서 반박근혜운을 적극 고조시키고있으며 통일운동과 관련한 토론회와 강연회들도 자주 개최하면서 활발한 투쟁을 벌이고있다.

지금 해외동포들의 반박근혜투쟁에 질질한 남조선 보수패당은 현지의 정보원, 령사관요원들과 《재향군인회》우익강제들을 내몰아 동포들의 시위와 집회, 토론회들을 방해하다 못해 뉴

스위행진참가자들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구라하는 비인간적인 만행까지 마구 저질렀다.

하지만 남조선보수패당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동포들의 투쟁을 가로막으려고 발악해도 정의와 진보를 위해 싸우는 해외동포들의 거세찬 항거의 흐름은 결코 막을수도 없앨수도 없다.

본사기자 리광성

## 《일하는 국회》가 아니라 《싸움판 국회》

최근 남조선 《국회》의 고질병이 도지고있다.

《정사》를 도의하고 《법》을 만드는 립법기관이라고 하는 《국회》가 《새누리당》의 오만과 독선으로 《날치기국회》, 《식물국회》로 전락되어 싸움판이 점차 커지고있는것이다.

지난 11월 28일 《국회》에서는 감사원 원장임명동의안이 의장의 직권상정에 의해 강행처리되었다. 변희예 상원의 의원은 가선 반발과 여론악화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단독으로, 날치기로 처리한것이다. 이에 야당이 강력 반발한것은 물론이다. 특히 민주당은 《국회》의 장에게 항의하고 회의장에서 퇴장하였는가 하면 《국회》의 사실정 전변보이프트를 선언하고 강경투쟁에 돌입하였다.

그로부터 나흘후 집권자가 아직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걸찰총장과 보건복지부장관을 임명할것을 계기로 사례는 더욱 험악해졌다. 민주당은 《누가 죽나 한번 보자》는 배심으로 집권여당의 독단,

전혀과 끝까지 맞서 싸움의지를 굽히지 않고있다. 정말이지 《코퍼티지는 싸움》이 벌어지는 판이다.

문득 지난 2011년 11월의 《날치기국회》가 방불히 떠오른다. 당시 《한나라당》은 각계층 인민들의 반대에 불구하고 남조선미국 《자유무역협정비준동의안》을 날치기로 통과하였다. 오죽했으면 야당의 한 의원이 격분을 금치 못한 나머지 항의의 표지로 최루탄을 터졌겠는가.

하지만 제 버릇 개 못준다고 청와대와 집권여당의 독단은 더욱 살판나 이제에는 《새누리당》단독으로 매년도에산안도 강행처리하려는 판이다.

현 집권세력이 제19대 《국회》의원선거때 《국회》를 인민들의 의사가 집중되고 실현되는 《일하는 국회》, 《여야협력의 국회》, 《야합협력의 국회》, 《여야협력의 국회》로 만들겠다고 입이 죽도록 웨쳐왔지만 바로 현실은 이렇다. 그러니 여론조사에서도 나왔듯이 응답자의 91%가 지금 《국회》가 일을 잘못한다고 하면

서 《국회》를 해체하라는 말까지 터져나오는것은 당연하다.

오늘 남조선 《국회》의 고질병인 날치기, 싸움판이 또 다시 도전되는 다른데 원인이 있지 않다.

현 집권세력의 오만과 독선에 근본원인이 있다.

여간 정치공방의 중점인 불법대선개입사건의 책임문제는 한사코 외면해, 야당이 강경하게 요구하는 특검은 받아들이지 않아, 통합진보당 의원의 처벌강행처리가 난관에 부딪치자 이번에는 야당을 향해 《종북세력비호》를 운운해나서는 형편이니 독재가 살을 뻗쳐도 단단히 뻗쳤다. 이런 《국회》에서 무슨 일인들 잘되고 인민들의 요구와 의사가 어떻게 관철되었는가. 또 혼란된 남조선정국은 어떻게 풀려나갈것인가. 시작을 보면 끝을 알 수 있다고 독재기질을 철저히한 현 보수세력이 집권해있는 한 남조선 《국회》의 고질병은 언젠가 도나올수 없다.

## 퇴진의 불길은 해외에서도 타오른다

남조선에서 불법무법의 선거로 권력의 자리를 차지한 현 당국자의 퇴진을 요구하는 각계층의 투쟁이 날로 세차게 벌어지고있는 가운데 최근 해외동포들속에서도 진보민주세력에 대한 보수패당의 파쇼적탄압과 《유신》독재부활책동을 단죄규탄하는 목소리가 날로 고조되고있다.

알려진바와 같이 유럽지역 해외동포들이 지난 11월 남조선집권자의 유인책과 반박근혜투쟁을 벌리는데 이어 재미동포들도 항의집회와 촛불시위, 거리행진 등 다양한 반박근혜투쟁을 벌일 벌리고있어 여론의 이목을 끌고있다.

뉴욕, 로스앤젤레스, 워싱턴지역에서 6.15공동선언실천 미국지역위원회, 재미동포전국련합회, 《노동들》, 《사람사는 세상 워싱턴》을 비롯한 10여개의 진보, 중도단체들과 각계층 동포들이 11월 중순부터 남조선 보수패당의 불법대선개입, 전교조불복, 통합진보당 해산시도, 시민단체강제해산법추진 등을 반대배격하 《박정희 180년 아직도 계속되냐!》, 《박근혜는 합법적인 대통령이 아니다!》, 《민주주의의 사수》, 《진보당 지키자》 등의 구호판들을 들고나와 각종 구호들과 투쟁가요들을 합창하며 밤새껏 촛불집회와 시위, 거리행진을 벌리고있다.

주목되는것은 재미동포들의 반박근혜퇴진투쟁에 현 주민들까지 합세해나서면서 현재 시카고와 필라델피아, 보스턴을 비롯한 미국의 여러 지역으로 급속히 확대되어가고있는것이다.

해외동포들은 반박근혜비난어른전도 기세차게 벌리고있다.

유럽과 미국지역의 언론인들은 담화와 로설, 론평 등을 련이어 발표하여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이른바 《종북놀이》로 자들의 죄악을 가리우고 허위와 기만으로 국민들을 속여왔다면서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죄를 진심으로 속죄하고 물러나지 않으면 력사의 가혹한 심판을 면치 못할것이라고 규탄하였다.

또한 전 한신대학교 교수였던 한 재미동포는 박근혜는 사대매국적인 사고방식으로부터 《신뢰프로세스》니, 《셀프개혁》이니 하는 외배

법적인 대통령이 아니다!》, 《민주주의의 사수》, 《진보당 지키자》 등의 구호판들을 들고나와 각종 구호들과 투쟁가요들을 합창하며 밤새껏 촛불집회와 시위, 거리행진을 벌리고있다.

주목되는것은 재미동포들의 반박근혜퇴진투쟁에 현 주민들까지 합세해나서면서 현재 시카고와 필라델피아, 보스턴을 비롯한 미국의 여러 지역으로 급속히 확대되어가고있는것이다.

해외동포들은 반박근혜비난어른전도 기세차게 벌리고있다.

유럽과 미국지역의 언론인들은 담화와 로설, 론평 등을 련이어 발표하여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이른바 《종북놀이》로 자들의 죄악을 가리우고 허위와 기만으로 국민들을 속여왔다면서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죄를 진심으로 속죄하고 물러나지 않으면 력사의 가혹한 심판을 면치 못할것이라고 규탄하였다.

또한 전 한신대학교 교수였던 한 재미동포는 박근혜는 사대매국적인 사고방식으로부터 《신뢰프로세스》니, 《셀프개혁》이니 하는 외배

어들을 자주 입에 올리고있다고 하면서 박근혜는 국민들에 의해 당선된것이 아니라 《국정원》에 의해 당첨되었다. 이런 박근혜가 《국정원》의 《셀프개혁》을 운운하는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실지 개혁해야 할 대상은 바로 박근혜자신이라고 신랄히 비난하였다.

해외동포들은 《민족통일》과 재미동포전국련합회 홈페이지를 비롯한 인터넷언론들을 통한 언론전도 크게 벌리면서 반박근혜운을 적극 고조시키고있으며 통일운동과 관련한 토론회와 강연회들도 자주 개최하면서 활발한 투쟁을 벌이고있다.

지금 해외동포들의 반박근혜투쟁에 질질한 남조선 보수패당은 현지의 정보원, 령사관요원들과 《재향군인회》우익강제들을 내몰아 동포들의 시위와 집회, 토론회들을 방해하다 못해 뉴

스위행진참가자들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구라하는 비인간적인 만행까지 마구 저질렀다.

하지만 남조선보수패당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동포들의 투쟁을 가로막으려고 발악해도 정의와 진보를 위해 싸우는 해외동포들의 거세찬 항거의 흐름은 결코 막을수도 없앨수도 없다.

본사기자 리광성

## 현 집권자의 사퇴를 주장하는 종교계의 항의운동 확대

11월 30일 남조선 《CBS》 방송에 의하면 남조선에서 현 집권자의 사퇴를 주장하는 종교단체들의 항의운동이 확대되고있다.

원불교소속 종교인들은 29일 전라북도 익산에서 기자회견을 가지었다. 그들은 정보원을 비롯한

권력기관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지난해 《대통령》선거는 보수 《정권》을 유지하려는 목적밑에 강행된 범죄행위라고 까뻐했다.

그 책임이 박근혜와 《새누리당》에 있다는것을 다시금 알린다고 하면서 사건의 진상이 밝혀질 때까지 모든

노력을 다해나갈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이에 앞서 기독교공동대 책임위원 종교인들과 조계종소속 승려들도 현 집권자가 국민에게 사죄하고 권력의 자리에서 물러날것을 요구하였다.

본사기자 서명수

## 광주지역 종교단체들 항의운동 선언

불교, 천도교, 카톨릭교를 비롯한 남조선의 광주지역 5대종단 대표들이 11월 28일 광주에서 모임을 가지었다.

모임에서 그들은 현 집권자의 사퇴를 요구한 전종교정의구현전주교구사제단의 시국미사이후 벌여지고있는

## 리념대결을 조장하는 보수당국을 단죄

남조선의 불교인 1000여명이 11월 28일 서울 조계사에서 기자회견을 가지어 리념대결의 광풍을 몰아오는 보수당국을 규탄하였다.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들은 현 《정부》가 저들의 정책을 반대하는 세력을 《종북》으로 몰아 국민적인 리념대결을 조장하고있다고 비난하였다.

보수패당이 현 집권자의 퇴진을 요구하며 카톨릭교인들이 시국미사를 한것



현 남조선집권자의 퇴진을 요구하는 재미동포들

##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진상 규명과 박근혜대통령 퇴진 촉구



## 박근혜 정부의 참회와 민주주의 수호를 염원하는 기하북교조계종승려 기자회견



## 대한민국에 정권교체보다 먼저 민주정권 확립

최근 괴뢰국 방부가 그 무슨 《전문성》과 《일관성》을 떠들며 《국방정신전력원》이라는것을 새로 내었다.

《국방정신전력원》으로 말한다면 1977년 박정희 《유신》독재자가 괴뢰군에 대한 반공교육을 《정신교육》소통을 발광적으로 벌리었다.

지나해 괴뢰군부대장이 《(종북세력)의 위협성》이니, 《명확한 대적관과 안보관을 확립할 필요성》이니 하면서 이른바 《종북세력실체표준교안》이라는것을 괴뢰군의 모든 신병훈련소와 야전부대, 군사교육기관들에서 《정신교육》에 무조건 활용하도록 한것이 그 실체이다.

지금 괴뢰군부대장은 이반에 《국방정신전력원》을 내용으로써 괴뢰군에 대한 《정신교육》에서 전문성과 일관성을 높일수 있게 되었다고 뉘소리를 치고있다.

괴뢰군부대장이 시대의 퇴물인 《국방정신전력원》을 다시 부활시킨 목적은 명백하다. 동족을 적대시하

본사기자 류현철

# 봄은 이역에 있어도 마음은 언제나 조국에 두고 (2)

## 그날의 사적을 오늘도 전해주는 길림육문중학교

길림은 조국인민들속에 널리 알려진 도시이다. 중국 길림성 소재지인 길림시에는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동상이 모셔져있는 길림육문중학교가 있고 주석의 초기 혁명활동시기의 투쟁사적이 깃들여있어 오늘도 이곳을 찾는 동포들의 발걸이 끊이지 않고있다.

우리가 중국땅에 발을 디디어 제일먼저 찾은 곳도 길림이었다.

매는 11월 중순이지만 그곳에서는 차거운 겨울바람이 불고 눈이 평평 내리고있었다.

올해에 들어와 처음으로 맞는 눈이었다. 그 눈을 맞으며 속으로 향하느라니 추억이 더욱더 갈마들고 어려서부터 배운 수령님의 항일혁명투쟁의 나날들이 되새겨졌다. 이 찬눈을 맞으며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항일혁명의 험난한 길을 걷고 또 걸으시었으며 마침내 강도일제를 타승하고 우리 겨레에게 빼앗긴 나라, 아름다운 강산을 다시 찾아주시지 않았던가. 길림시내 한복판을 가로지르며 유유히 흐르고있는 송화강의 푸른 물도 그날의 뜻깊은 사연을 속삭여주는 듯싶었다.

다음날 이른아침에 우리는 길림육문중학교에 모셔진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동상을 찾아 삼가 인사를 드렸다.

항일의 근본차림으로 쌍안경에 손을 얹고 백두의 그 나날처럼 흰눈을 맞으며 서계시는 주석의 동상은 바라볼수록 우리 민족이 낳은 절세의 애국자, 천출유인애 대한 한없는 그리움으로 가슴부풀게 했다.

우리는 그곳 학교교장의 안내를 받으며 주석께서 육문중학교시절 공부하시었던 교실과 책상, 의자를 깊은 감동속에 돌아보았다. 또한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학교에 보내주신 피아노와 민족악기들이 전시되어

있는 방도 참관하였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수년전 력사적인 중국방문의 나날에 이곳 학교를 찾으시어 남기신 뜻깊은 발자취도 교장의 해설을 들으며 다시금 가슴에 새기었다.

《아버이장군님께서 길림 육문중학교를 찾으셨던 영광의 그날을 영원히 잊을수 없습니다. 온 길림이 들썩했고 동포사회는 명절처럼 흥성이었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민족을 위해 크나큰 업적을 쌓으시고 조국친선의 강화발전에도 불멸의 공헌을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을 이곳 육문중학교에 함께

모시는것입니다.》  
우리와 동행했던 재중조선인총련합회의 한 일군이 하던 절절한 이 말.  
아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은 압록강의 푸른 물처럼 변함없이 흐르며 조국친선의 력사와 더불어 두 나라 인민들과 재중동포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계실것을 뜨겁게 느끼며 우리는 길림육문중학교 정문을 나섰다.  
본사기자



우리가 길림에 가서 제일 깊은 인상을 받은것은 재중조선인총련합회 길림지구협회에 소속되어있는 동포합머니들이었다. 조국에서 대표단이 왔다고 추운 날씨에도 여전히 마중나와 따뜻한 맞이하고 열싸안아주던 동포합머니들, 오랜만에 멀리 떨어진 자식을 만난듯 그리도 반가워하며 살뜰히 대해주는 그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이국에서 살아도 마음속으로는 언제나 조국을 생각하며 인생의 자욱자욱을 애국으로 수놓아가는 재중동포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엿볼수 있었다.

이들은 아버지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자욱이 어려있는 영광의 땅에서 살며 애국사업을 하는 남다른 긍지와 행복을 지니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수령님의 동상을 더 밝고 정중하게 모시기 위한 사업에 자신들의 깨끗한 마음을 바쳐가고있었다. 우리가 길림육문중학교를 찾았을 때에도 이들은 약속이라도 한듯 저마다 아침일찍 나와 수령님동상주변에 밤새 내려쌓인 눈을 말끔히 쳐내

다졌습다.》고 올해 조국방문의 나날을 감회깊이 추억하는 김정애로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져있었다.

조국에 만수대가 있다면 여기 중국동북지방에는 길림육문중학교가 있다고, 수령님동상이 높이 모셔져있는 육문중학교는 《길림의 만수대》라 하며 앞으로 수령님동상을 더 잘 모시겠다고 절절히 자기 심정을 토로하던 태순련로인의 말도 잊을수가 없다.

다음날 점심 시내의 한 식당인 평양풍악산식당에서 우리는 동포로인들이 성의껏 차려준 민족음식을 맛나게 들며 그들의 뜻있는 이야기에 심취되어 시간이 가는 줄 몰랐다.

김영희(길림지구협회 부회장): 조국을 떠나서 우리는 못산다.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조국과 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시었는가. 이제 우리가 대원수님들을 한자리에서 뵈옵고 마음속 애국의 결의도

못하지만 우리는 조국의 사랑속에 산다. 원수님의 믿음, 사랑속에 사는 해외공민들이라는 긍지를 안고 일을 더 잘해나가야 한다고 본다.

...  
구려어 이 지면에 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더 적을 필요는 없다고 본다. 이들의 말이 모든것을 말해주기에.

자기 조국과 령도자에 대한 리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심, 세사천지가 어떻게 변하고 돌아가도 조국에 바친 한 마음 변치 않고 일편단심 조국만을 따르는 이들의 고상한 애국의 넋과 정신이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금할수 없었다.

길림은 압록강너머 수백리 먼곳에 있지만 지금도 우리와 헤어지기전 길림의 《보배할머니》들이 마음과 목소리를 합쳐 부르던 《우리는 조선사람》의 씩씩한 노래가 절구절이 귀전을 계속 울리고있다.

우리는 소리높이 자랑하네  
이역만 중국에 산다 해도  
우리는 조선사람  
백두산너머에 울리는  
사회주의조선의 노래  
귀에 쟁쟁 들을수록  
정말 정말 감지롭다네

길림체류의 나날 우리는 재중조선인총련합회 길림지구협회 회장이며 길림시지부 지부장인 황진생동포의 집을 방문하였다.

황진생동포는 조국인민들에게 잘 알려진 모범적인 동포회장이며 《통일신보》의 열성독자이기도 하다. 그는 지난 시기 《통일신보》에 많은 글을 투고해왔고 해마다 양력설을 맞을 때면 축하엽서도 꼭꼭 보내와 기자, 편집인들을 고무격려 해주곤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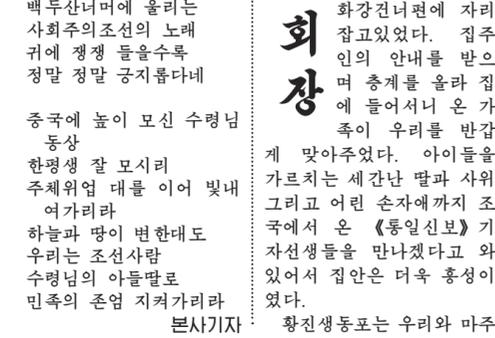
살뜰한 어머니를 련상케 하는 황진생회장은 길림체류의 나날 우리들의 생활을 각별히 보살펴주었다.

그의 집은 길림 육문중학교에서 한참 먼곳에 있는 송화강강너편에 자리 잡고있었다. 집주인이 안내를 받으며 층계를 올라 집에 들어서니 온 가족이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시간난 딸과 사위 그리고 어린 손자까지 조국에서 온 《통일신보》가 자신들을 만나겠다고 와있어서 집안은 더욱 흥성이었다.

황진생동포는 우리와 마주 앉아 조국에서 자기와 가족에게 끝없이 베풀어주는 사랑과 배려에 대하여 한참이나 이야기하였다. 수령님과 자기 일가의 연고관계에 대하여, 해방후부터 오늘까지 받아안은 조국의 따뜻한 사랑에 대하여...

그는 지난 9월말~10월초에 3중모범지부 공민, 가족 친척방문단으로 길림시에 사는 공민들이 꿈에도 그리운 조국을 방문하여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른다고 하면서 조국에 도착한 첫날부터 해외동포인회위원회에서 길림동무들, 수고 많았다고 축하해주고 세심히 관심해줄 때 영광의 길림에서 사는 긍지감이 가슴부풀어 안겨왔다고 감회깊이 말하였다.

그의 집벽면에는 주체 80(1991)년 4월에 조국을 방문하여 여러 해외동포들과 함께 아버지수령님의 집견을 받고 함께 찍은 기념사진을 비롯하여 영광의 기념사



내가 처음으로 북을 방문하였을 때 얼마동안은 나에게 신비롭게 비추이고 때로 의문을 갖게 하는 일들이 적지 않았다. 그중의 하나가 《학교가 학생을 찾아간다.》는 북의 특이한 학교건설원칙이었다.

《학교가 학생을 찾아간다.》, 나에게 너무나 생소한 이 말이 진실로 리해되기까지는 얼마간의 시간이 필요했다.

북에 와서 내가 들은데 의하면 해방후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한 교육일군이 화전부락이나 립산마을과 같이 학생수가 10~20명밖에 안되는데도 학교를 내와야 하는 학교에 말씀드리었을 때 옛날에는 학교에 학생이 찾아와서 배웠지만 오늘 우리는 많고적고 관계할것없이 학생이 있는 곳이라면 찾아가서 학교를 세워주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고 한다.

감동을 금할수 없었다. 학생이 있는 곳에 찾아가서 학교를 세우고 배워주는 원칙, 이는 후대들을 위함이라면 그 무엇보다도 아끼지 않으시는 주석님께서만이 내놓으실수 있는 세상에 하

나밖에 없는 학교건설원칙이 아니겠는가.

실제로 북에서는 이 학교건설원칙에 따라 학생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에나 학교가 세워지고 있다.

북에는 해발 수천m나 되는 높은 산줄기 려림속의 산간에도, 단 3명의 어린이가 있는 외진 섬에도 학교가 있고 19명의 학생들

강 하나, 고개 하나를 사이에 두고도 아이들의 통학길이 멀어질새라 따로 학교를 세워주는 특이한 국가의 학교건설원칙에 따라 대문단의 삼천리별에 분장하며 북교가 생긴것을 비롯하여 량강도에만도 20명미만의 학생들을 위한 분교가 모두 80여개나 된다 실로 놀라지 않을수 없다.

오늘날 지구상의 많은 나라들에서 학교는 학생들을 배워주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사명에 앞서 돈을 벌어들이기 위한 리윤추구의 수단으로 리용되고있다.

돈이 없으면 학생은 될수 없고 학생으로 되었다 해도 학비를 제때에 내지 못하면 학교에서 내쫓기워야 한다. 무거운 학비부담으로 미국의 뉴욕시에서만도 해마다 2만여명의 고등학교학생들이 중퇴하고있다고 한다.

교육분야에 대한 지출은 줄이

고 학비를 받아들이는데만 인경을 쓰니 학생들의 교육이 제대로 될리가 없는 법, 미국전국교육발전정책위원회가 전국적범위에서 조사한데 의하면 미국에서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9~13살의 학생들이 초보적인 글읽기와 쓰기를 못하고있다고 한다.

말마전 일본의 한 사회단체가 고등학교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약 4분의 1이 자그들때문에 가족이 막대한 학비부담을 견뎌지고있다고 하면서 돈때문에 마음놓고 공부할 할수 없는 불우한 처지를 탄탄하였다.

남조선에서도 자녀 1명을 낳아 대학을 졸업시킬 때까지 드는 돈은 2억 6000만원이 넘는다고 한다. 결국 돈을 위해 학생을 찾아가는 북의 현실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지 않은가.

《학교가 학생을 찾아간다.》, 이 말에 교육의 나라, 배움의 나라로 불리우는 북의 현실이 비껴있다.

재카니디동포 현 지은

인민보건사업에서 이룩된 성과들

전반적무상치료제가 실시된 때로부터 60년째 인류를 아로새긴 뜻깊은 올해에 공화국의 보건부문에서는 많은 성과가 이룩되었다.

올해 첨단과학기술에 의한 먼거리의료봉사의 리용분야가 보다 확대되었다. 지난해 전국적인 범위에서 먼거리의료봉사가 시작됨에 맞게 보건건설과 과학자, 기술자들은 먼거리수술지원체계를 개발하여 전국에 도입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먼거리수술지원체계는 현실적조건을 충분히 고려한데 기초하여 상급병원의 유능한 외과전문가들이 아래단위의 수술환경과 조건을 원격으로 감시, 조종하면서 직접수술지도를 줄수 있게 설계된 첨단의료봉사체계이다.

먼거리의료봉사를 통하여 근로자들은 전체 인민을 사회주의혜택의 참다운 향유자로 참된 삶을 누리게 하여주는 나라의 고마움을 때때로 절감하고있다.

먼거리의료봉사에 관한 세계보건기구 동남아시아지역 기술협의회에 참가하였던 수많은 외국인들은 조선의 보건제도가 세상에서 제일이라고 저마다 감탄을 금치 못했다.

먼거리의료봉사체계를 통한 원격의료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이 과정에서 의료인력들의 립상기술이 한계단 높은 수준으로 올라섰으며 학위학직소유자, 발명 및 창의 고안자들의 대렬이 부쩍 늘어났다.

이밖에 난치성질병치료를 위한 줄기세포기술이 확립되었으며 효능높은 3세대항생제를 개발한것을 비롯하여 보건부문에서 많은 성과가 이룩되었다. 올해에 열린 제15차 전국보건부문과학기술성공전시는 나라의 의과학기술을 한계단 끌어올리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되었다.

올해에 근로자들에 대한 건강보철과 백내장수술의료봉사 성과적으로 진행되었으며 특히 경막외마취에 의한 정상상안무통해산이 산업병원건설에까지 확대되어 수많은 녀성근로자들이 선진의료봉사를 받게 되었다. 유선질병들을 조기적발하기 위

한 정연한 체제가 세워진데 맞게 전국적 녀성들을 대상으로 검진 및 치료사업도 활기있게 진행되었다.

이 모든 사업들은 의료봉사사업의 질적수준을 한계단 더욱 높여주었으며 날로 늘어나는 공화국의 인민적시책과 더불어 수많은 사람들의 건강과 생명을 믿음직하게 담보해주었다. 김정숙료양소, 달천영예군인료양소를 비롯한 각기 광천료양소에서 인민들에 대한 광천의료봉사를 원만히 보장하였다. 지금 공화국의 인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람찬 사업에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갈 열의에 넘쳐있다.

본사기자 김춘경

## 우리는 조선사람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본부를 살리고 더 튼튼하게 해야 한다. 내 나이는 들었지만 앞으로 일을 더 잘하겠다.

홍영순(길림시지부 회원): 조국통일을 위해 우리 할머니들도 정말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일을 잘해야 한다고 본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못하면 병이 난다.

김경애(길림시지부 회원): 그전에 내가 일본에 갔을 때 이국에서도 조국의 영예를 빛내어가고있는 총련조직을 부러워했다. 그때 우리 재중총련도 제일총련과 같이 튼튼히 꾸리리라 결심했다. 우리 최은복의장을 비롯한 총련본부와 길림시지부의 일군들이 일을 정말 잘한다. 이런 훌륭한 조직이 있기에 내가 아직 죽지 않고 일을 더 할수 있겠구나 생각한다.

황진생(길림지구협회 회장): 우리 부회장과도 사람들은 길림의 《보배할머니》라 부른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총련을 위해, 조국을 위해 아낌없이 돈을 바치고 정열을 다 바쳐가고있다. 우리 총련합회가 후대도 든든하다.

최은복(재중조선인총련합회 의장): 중국에 프랑스 등 수십개 나라의 공민들이 살지만 우리 재중조선인공민들처럼 서로 돕고 이끌어가는 이런 훌륭한 공민집단은 없다고 본다.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오늘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믿고 내세워주시지 않았으면 이런 회원, 이런 조직을 생각할수 없다.

혜외에 있어서 다 느끼지



## 특이한 학교건설원칙

북에 와서 내가 들은데 의하면 해방후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한 교육일군이 화전부락이나 립산마을과 같이 학생수가 10~20명밖에 안되는데도 학교를 내와야 하는 학교에 말씀드리었을 때 옛날에는 학교에 학생이 찾아와서 배웠지만 오늘 우리는 많고적고 관계할것없이 학생이 있는 곳이라면 찾아가서 학교를 세워주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고 한다.

감동을 금할수 없었다. 학생이 있는 곳에 찾아가서 학교를 세우고 배워주는 원칙, 이는 후대들을 위함이라면 그 무엇보다도 아끼지 않으시는 주석님께서만이 내놓으실수 있는 세상에 하

# 미림승마구락부에 행복의 말발굽소리 울린다

## 고마움의 인사를

인민의 기쁨과 행복 끝없이 넘쳐나는 공화국에 또 하나의 화려한 현실이 펼쳐졌다. 평양시교외의 미림승마구락부에 세상에 자랑할만한 종합적이고 현대적인 대중승마봉사기지가 훌륭히 일떠선 것이다.

날로 높아가는 인민들의 문화정서적요구에 맞게 최상의 수준에서 꾸려진 미림승마구락부에는 근 2 000m의 길이를 가진 승마주로와 실내 및 야외승마훈련장들, 승마시식보급실, 피로회복원, 수의병원, 종축연구소 등 승마운동과 교육에 필요한 모든것이 그쯘히 갖추어져 있다.

지난 10월 25일 미림승마구락부가 준공된 때로부터 한달남짓한 기간 많은 각계층 근로자들과 청소년 학생들이 이곳을 찾아 행복의 말발굽소리 높이 울리며 사회주의문명을 마음껏 향유해가고 있다.

승마훈련의 즐거움에 꼭 빠져 회열에 넘쳐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미림승마구락부의 한 일꾼은 이렇게 말하였다.

《아마 사람들은 다는 모를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에게 이렇듯 훌륭한 대중승마봉사기지를 마련해주시기 위해 우리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바쳐 오신 그 헌신의 낮과 밤을 말입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미림승마구락부에 현대적인 승마봉사기지를 건설할것을 발기하시고 휴먼지 날리는 건설현장을 때없이 찾으시어 승마구락부를 인민관이 철저히 구현된 대중승마봉사기지로 완전무결하게 건설하도록 전과정을 세심히 보살펴주시었다.

그 나날 말타기에 편리하

게 잔디 및 토사주로를 잘 닦고 실내승마훈련장에 톱발같은것을 두루하게 깔아주며 인민들이 승마운동을 마음껏 하도록 제기되는 문제들을 모두 해결해주자고 하시며 승마복과 승마용품들을 최상의것으로 마련해주시고 승마용품도 보내주신 감동깊은 사연이 수없이 꽃피었다.

오늘날 세계에는 수천만마리의 말들이 승마용으로 리용되고 승마운동이 하나의 추세로 되고있다.

바로 우리 인민들이 누려야 할 만복중에는 웅덩이 마를 하는 것도 있어야 하며 천만금을 들여서라도 제일 좋은 승마구락부를 꾸려 인민들에게 안겨주어야 한다는 열렬한 뜻을 굳히시며 낮에 밤을 이어 펼쳐가신 그이의 불같은 헌신에 떠

받들려 미림승마구락부가 최상의 수준에서 꾸려질수 있었던것이다.

하기에 현대적인 대중승마봉사기지에서 온정어린 말을 타고 승마운동을 하는 사람들 누구나 경애하는 원수님의 한량없는 사랑에 격정을 금치 못해하고있다.

TV에서 멋있게 꾸려진 승마장들을 바라보며 저런것은 유럽나라들에나 있는것으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자기 땅에 보란듯이 일떠선 화려한 승마장에서 말을 타는 멋을 향유하고있으니 생각할수록 꿈만 같다.

이렇듯 훌륭한 승마구락부를 일떠세워 인민들에게 통쾌한 안겨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 고마움의 큰절을 드리고싶다. 이것이 절세위인의 품속에서 행복을 꽃피우는 이 나라 인민 모두의 진정의 웨침이다.

본사기자 홍범식



## 손색이 없는 멋쟁이 훈련장

미림승마구락부에서 제일 큰 건물은 실내승마훈련장이다.

바깥벽체를 통나무로 쌓은듯 한 실내승마훈련장의 계단과 홀의 벽면들은 자연풍경을 비롯한 여러가지 그림들로 장식되어있고 나무로 이루어진 장식물들은 훈련장내부의 자연미가 그대로 살아나게 한다.

실내훈련장에 들어서면 내부의 웅장함과 이채로움, 구석구석에 비껴있는 섬세함으로 하여 탄성이 절로 나온다.

추운 겨울에도 훈훈한 기운을 보장할수 있는 실내승

마훈련장은 자연채광을 충분히 받을수 있게 되어있을뿐 아니라 백수집게에 달하는 조명등빛은 저녁에도 말타기운동에 지장이 없게 하고있다.

톱밥, 모래, 석비레, 소금 등을 섞은 재료를 깔아놓아 폭신복신한 타원형의 주로바닥은 훈련장의 위생성을 보장하고 승마운동을 하다가 말우에서 떨어져도 상하지 않게 되어있다.

또한 사람들은 주로에 설치된 거울에서 승마운동을 하는 자기의 모습을 보며 자세를 바로잡기도 한다.

2층에는 훈련장의 전경

한눈에 바라볼수 있게 관람홀과 관람대가 편리하게 설치되어있으며 승마운동으로 달아오른 몸을 식히며 시원하게 청량음료를 마실수 있는 봉사시설들도 갖추어져있다.

실내승마훈련장의 변신호 봉사원의 말에 의하면 현대적으로 꾸려진 실내승마훈련장이 문을 연 때로부터 매일이 다같이 각계층의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있다고 한다.

겉보기가 속보기라고 실내승마훈련장이야말로 안팎으로 손색이 없는 멋쟁이 훈련장이다.

본사기자 최대성



승마구락부에는 승마시식보급실도 있다.

여러개의 강의실과 과학기술보급실들로 이루어진 승마시식보급실에 들어서면 누구나 절로 승마의 세계에 빠져들게 된다.

## 승마의 세계에 빠져

승마구락부에서 단기강습에 망라되어 강습을 받을수 있게 된 승마시식보급실에서는 목화물을 통한 강의와 인민대학습당에 비치되어있는 말과 관련한 자료를 콤팩트 디스크를 통하여 보급받을수 있다.

《말훈련주기》, 《현대조교체육에서 고전기마술》, 《말타루기와 말타기훈련》, 《어린말길들이기방법》, 《세계적으로 유명한 말을 노리라》, 마디라도 놓칠세라 귀담아들으며 승마시식을 열성적으로 습득해가고있다.

참관자들속에는 폭넓은 승마시식을 가진 사람들도 적지 않아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경우가 많다.

승마구락부에서 사람들은 강의에서 체득한 승마와 관련한 지식들을 실지 말을 타면서 숙련해가고 있다.

이곳에서는 세계적인 승마협회에 가입할수 있는 풍부한 승마시식을 소유한 전문가들도 양성하고있다.

본사기자 고영숙

## 《미림승마구락부에 가보았는가?》

요즘 사람들이 만나면 이런 말부터 주고받는다. 어디서나 사람들은 승마운동에 대한 이야기로 열을 올린다. 새로 일떠선 종합적인 대중승마봉사기지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미림승마구락부가 일떠서게 된다는 소식에 접하고 하루가 다르게 번모되어가는 건설장의 모습을 TV 화면으로 지켜보면서 말을 타고 질주하는 모습을 흥분속에서 그려보던 많은 사람들이 봉사가 시작되자 앞을 다투어 이곳을 찾았다. 기관, 기업소별로 혹은 친구들이나 가족들과 함께 지어 지방에서도 한달음에 달려오는 사람들로 하여 이곳을

## 승마주로에 넘쳐나는 희열과 랑만

찾는 사람들을 위해 특별히 마련된 로션베스는 늘 초만원이다.

눈부리 아득히 펼쳐진 미림승마구락부 야외승마훈련장은 승마복을 가쁘히 차려입고 말우에 올라 경쾌하게 질주하는 사람들로 흥성인다. 정신육체적으로 단련된 뿐 아니라 생의 희열을 더한 흥 넘치게 되는 승마세계 앞에서는 젊은이, 늙은이가 따로 없다. 그들중 대부분이 처음 말을 타보는 사람들이어서 욕망뿐이지 숨씨가 서둘러 웃음을 자아내기가 일쑤이다. 한 치너는 말에 올라타는것이 그만큼 어렵게 말 등에 업혀 어퍼러져 폭소를

자아냈다.

말안장에 올라타고 당황해하는 사람도 있다. 어찌된 일인지 말이 앞으로 나가지 않는다는것이다.

《손님이 처음 말을 타보다니니 긴장해있는것 같습니다. 덩지가 커도 말은 평리해서 말란 사람의 불안감을 인지 알아맞춥니다.》 그의 걸로 다가간 봉사원이 이렇게 말하며 처음 말을 탈지라도 마음을 똑 놓고 말과 호흡을 같이하는것이 중요하다고, 말안장에 오르는 법과 고삐를 쥐는 법부터 시작하여 승마기술을 하나하나 터득하면 쉽게 말에 익숙해질수 있다고 친절

하게 알려주자 당황했던 얼굴에 금시 웃음꽃이 피어오른다.

그런가하면 오래전부터 승마운동에 익숙된듯 말안장에 오르자마자 성급하게 박차부터 가하는 젊은이들도 있다. 평양시 평천구역 북성유치원에 다니는 6살 나눈 박예진어린이는 키작은 말을 타고 제법 룰동적으로 승마있게 말을 몰아가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어느새 하루가 흘러 야외승마훈련장의 하늘가에 저녁 노을이 불타고있건만 희열과 랑만이 넘쳐나는 주로에서는 행복의 말발굽소리 그칠 줄 모른다.

본사기자



미림승마구락부에는 승마운동으로 인한 피로를 가실수 있는 피로회복원이 최상의 수준으로 꾸려져있다.

산속의 귀틀집을 방불케 하는 통나무장식의 외형도 훌륭하지만 서까래모양의 홀천정장식을 한 내부부는 정갈하게 꾸려져 더욱 멋있다.

피로회복원에서 제일 인기있는 곳은 운동실이다. 이곳 운동실에는 노젓기 운동기계, 의자전신안마기, 자전거팔다리운동기계, 달리기운동기계, 다기능답보기, 발판진동기 등을 비롯한 각종 운동기재들이 충분히 갖추어져있다.

36가지의 안마기능을 수행한다는 의자전신안마기에 앉으면 여러개의 크고작은 공들이 굴러다니며 온몸에 자극을 주는데 그 쾌감이란 이루 말할수 없다. 피로회복원의 봉사원 김은심은 승마운동으로 쌓인 피로도 이 의자전신안마기가

순식간에 풀어준다고 말하였다.

운동실을 나서면 특색있게 꾸려진 목욕실과 안마실이 사람들을 맞이한다.

맑은 물이 출렁이는 목욕실안의 수증조음파안마기들은 백옥을 다듬어만든 침대를 방불케 하는데 거기에 누워 자극적인 조음파안마를 받는 기분은 그 어디에도 비길데 없다. 더운물과 찬물이 나오는 샤워며 한증탕, 수조 등도 더할나위없다.

운동실과 안마실, 목욕실내부의 천정이며 벽장식, 윤기나는 바닥 그리고 설비와 비품 하나에 이르기까지 모든것이 피로회복원의 특성과 용도에 맞게 꾸려져있다. 승마운동의 즐거움도 크지만 피로회복원에서 쌓인 피로를 말끔히 풀고가니 더욱 좋다는것이 이곳을 찾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목소리이다.

본사기자



## 즐거움을 더해주는 봉사시설들



누구나 즐겨찾는 미림승마구락부에는 승마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충분히 보장해줄수 있는 봉사시설들도 특색있게 갖추어져있다.

특히 말을 타러 오는 사람들에게 승마모와 승마옷상의, 바지, 조끼, 장갑, 목구두, 다리보호대 등을 내려주는 봉사소는 언제나 많은 사람들로 흥성인다.

한편에는 루각형식의 야외관람석이 꾸려져있어 말을 타고 한바탕 달리고난 사람들이 승마구락부의 전경을 부감하며 이곳에서 휴식도 할수 있다.

목포수 홀러내리는 바위

